



오쌤 총평

1. 오태진의 『대각국사』 기본서 내용 안에는 99% 수록된 내용들로 출제되었다.
2. 2014 국가직 한국사는 어려움을 가장한 낮은 난이도의 문제가 3문제 정도 보였다.
3. 이번 시험이 쉬웠다고 여기는 수험생들은 기본 개념에 대한 반복 학습으로, 아리송하게 만드는 함정 보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답을 서슴지 않고 체크했을 것이다. 이 경우, 명백하게 정답으로 바로 인도되었을 것이다.
4. 그러나, 상급 개념에 집착하거나, 기본 개념 정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한국사가 의외의 복병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본 개념에 충실하여 『대각국사』 개념과 논리로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였다면, 정답률이 만점에 가까웠을 것이다.
6. 한편, 본 강사가 2014년 4월 18일(국가직 9급 시험 전날)에 강의한 ‘**오도사 특강**’ 내용에서 중원 고구려비에 대한 원문 해석을 완벽하게 하여, ‘**동이 매금**’ · ‘**신라토내당주**’ · ‘**고려대왕**’ · ‘**의복 하사**’ 등의 개념을 엄청 강조하였는데, 다음 날 국가직 1번 문제에 바로 출제가 되는 기분 좋은 현상이 발생하였다. ^^ ⇨(2014년 4월 18일 도사 특강 동영상 확인 바람)
7. 2014년에 출제된 익숙하지 않은 개념 정리
 - ① 1960년대 발굴한 구석기 시대 유적지(검은·석·굴)
 - ② 선종에 대한 왕실의 포섭 노력 개념
8. 다음은 단원별 출제 비중이다. 지난 번 국가직(사회복지직)과 비교해보면, 놀라우리만치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출제 위원들이 같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다음 번 출제 때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것이다.

2014 국가직 9급 출제 비중표(2014. 4. 19)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개항기	일제시대	현대사
1	4	4	7	0	2	2
5%	20%	20%	35%	0%	10%	10%
전근대사			근현대사			
80%			20%			

2014 사회복지직 9급 출제 비중표(2014. 3. 22)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개항기	일제시대	현대사
1	4	4	7	2	1	1
5%	20%	20%	35%	10%	5%	5%
전근대사			근현대사			
80%			20%			

1.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는 삼국시대의 금석문은?

-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 영토에 주둔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인다.
- 고구려가 신라의 왕을 호칭할 때 ‘동이 매금(東夷 寐錦)’ 이라고 부르고 있다.
- 고구려가 신라의 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 ① 광개토왕비 ② 집안고구려비 ③ 중원고구려비 ④ 영일냉수리비

정답 및 해설 : ③

‘동이 매금’ · ‘의복 하사’ 등을 통해 고구려가 상국으로서, 신라를 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중원(충주) 고구려비**에 있는 내용이다.

2. 신라 하대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주는 다음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하여 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복잡한 교리를 떠나서 심성(心性)을 도야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상에서 주장하는 바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곧 불성(佛性)임을 알면 그것이 불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견성오도(見性悟道)에 있었다.

- ① 전제왕권을 강화해주는 이념적 도구로 크게 작용하였다.
- ② 지방에서 새로이 대두한 호족들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
- ③ 왕실은 이 사상을 포섭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④ 인도에까지 가서 공부해 온 승려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정답 및 해설 : ②

‘불립문자’ · ‘견성오도’ 는 선종(禪宗) 불교의 핵심 사상이다.

- ① 전제왕권 강화 ⇨ 교종 불교 중, ‘화엄종’ 의 영향이다.
- ② 호족의 사상적 기반 ⇨ 선종 · 풍수지리 · 도교
- ③ 대체로 (9선) 산문이 일단 정착되거나 중인들의 추앙을 받은 뒤에 왕실의 초청이 있었지만, 선사들은 초청을 계속 거부했다. **왕실에서는 집요하게 접근하여 초청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더욱 성대한 예우를 올렸다.**

※ 다음페이지 추가 해설 참조

- ④ 인도(X)에까지 가서 공부해 온 승려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중국(0)

* 참조 - 9산 선문에 대한 왕실 초청 일람표

(산문) 관계/법명	(가지산) 도의	(실상산) 홍척	(쌍계사) 혜소	(봉림산) 현옥	(동리산) 혜철	(가지산) 체징	(성주산) 무렵	(사자산) 도운
귀국	821	불명	830	837	839	840	845	847
생년	불명	불명	774~850	787~868	785~861	804~880	800~888	798~868
홍덕왕 826~836		대면 (830 무렵)	대면(830)					
민애왕 838~839			초청거부 (838)	대면				
신무왕 839			새김글 조성 거부유언 (850)	대면				
문성왕 839~857				대면	봉사(封事) 약간 조 작성		초청거부 (847 무렵)	
현안왕 857~861				대면		초청거부/가지산 사이거명 (858)/도량장엄시주(860)	구언(求言)에 답장 (856)	
경문왕 861~875				대면/고달사 이거명		남·북탑 건립 (870)	대면뒤 도망하자 심묘사 이거명 (871)	대면 (추정)
현강왕 875~886							대면(876)/홍리계 해책 (878)	
정강왕 886~887							초청거부	
진성여왕 887~897								
기타							845년 무렵 몰락왕자 김혼 오합사터 시주	

<대각 플러스+>
신라 하대 왕실과 선종의 관계
 대체로 (9선) 산문이 일단 정착되거나 중인들의 추앙을 받은 뒤에 왕실의 초청이 있었지만, 선사들은 초청을 계속 거부했다. **왕실에서는 집요하게 접근하여 초청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더욱 성대한 예우를 올렸다. 진감혜소의 경우가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사료 익히기>
매양 사신이 말타고 와 왕명을 전해 멀리서나마 법령을 빌었다. 그런즉 말하기를, “무릇 왕의 땅에 살면서 승려 노릇하는 자로 누구인들 불법을 보호하는 데 마음을 기울여 임금을 위해 복을 쌓지 않으리오만, 또한 어찌 반드시 임금의 말씀을 마른 나무와 썩은 기둥 같은 저를 위해 멀리에서 더럽히십니까? 사신들이 굶주려도 먹을 수 없고 목말라도 마실 수 없는 실정을 생각해주시시오”라 하였다.— 선사의 죽음은 문성왕 시절에 있었다. 왕은 측은히 여겨 맑은 시호를 내리고자 했으나, 스님의 유언을 들음에 미쳐 그 뜻을 거두었다.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조선금석총람』 상, 70쪽

이와 같이 왕실의 산문 접근은 매우 집요하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는 왕실의 대산문정책이 거의 불가항력이었음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신분계층의 지지를 의식한 행위로 해석되는 것이다.** [* 참조]

3.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체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땅에 따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 ①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역사지리 연구의 단서를 열어 놓았다.
- ② 『임하경륜』을 통해서 성인 남자들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줄 것을 주장하였다.
- ③ 『동사』에서 조선의 자연환경과 풍속, 인성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 ④ 『동국지도』를 만들어 지도 제작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정답 및 해설 : ②

18세기 조선의 실학자, 홍대용의 『의산문답』 중 일부이다.

- ① 『동국지리지』, 한백겸
- ② 『임하경륜』 중, **균전제**, 홍대용
- ③ 『동사』, 허목 ⇨ **대각국사 2권 p. 290 17세기 역사서 적중!**

『동사』 (東事)	현종 8년 (1667)	① 근경 남인 허목에 의해 단군 - 삼국 시대 까지 편찬
		② 복벌 운동과 봉당 정치 비판 ③ 신성한 제왕(帝王)이 인후(仁厚)한 정치를 편 단군 · 기자 · 신라를 중국의 삼대(三代)에 비유할 만한 이상시대로 설정 ④ 조선의 자연환경과 풍속 · 인성(人性)의 독자성 강조 ⑤ 전쟁보다는 도덕과 평화를 사랑하고, 제왕(帝王)이 권위를 가진 정치가 나라를 오래 보존하는 정책임을 강조

- ④ 『동국지도』, 정상기

4.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총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사령에 이청천, 참모장에 이범석을 선임하였다.
- ② 영국군의 요청으로 일부 병력을 인도와 버마(미얀마) 전선에 참전시켰다.
- ③ 미군 전략정보처(OSS)와 협력하면서 국내 진공을 준비하였다.
- ④ 조선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다.

정답 및 해설 : ④

- ① 1940년, ② 1943년, ③ 1945년 ⇨ 한국광복군의 활동
- ④ **조선의용군(X)**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다. 조선의용대(O)

5. 8·15 광복 직후에 결정된 정당의 중심 인물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당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ㄴ. 송진우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하였다.	ㄷ. 안재홍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신민족주의를 내세워 평등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
---	---	---

- | | | |
|---------|-------|-------|
| 그 | ㄴ | ㄷ |
| ① 조선인민당 | 한국민주당 | 한국독립당 |
| ② 조선신민당 | 한국혁명당 | 한국독립당 |
| ③ 조선신민당 | 한국민주당 | 국민당 |
| ④ 조선인민당 | 한국민주당 | 국민당 |

정답 및 해설 : ④

- ㄱ. 여운형 · 진보적 민주주의 · 좌우합작 : 조선인민당
- ㄴ. 송진우 · 인민공화국 부정 ·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 : 한국민주당
- ㄷ. 안재홍 · 신민족주의 · 평등사회 : (조선)국민당

6. 1960년대 전반 남북한에서 각기 조사 발굴되어 한국사에서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 유적들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 남한 | 북한 |
| ① 제주 빌레못 유적 | 상원 검은모루 유적 |
| ② 공주 석장리 유적 | 웅기 굴포리 유적 |
| ③ 단양 상시리 유적 | 덕천 승리산 유적 |
| ④ 연천 전곡리 유적 | 평양 만달리 유적 |

정답 및 해설 : ②

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조사 연대’ 를 물어보는 출처 의도를 잘 알 수 없는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을 문제이다.

대각국사 1권 p. 38~39 구석기 유적지 부분을 살펴보면, 구석기 유적지 발견 연대가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음을 참고바란다.

- ① 제주 빌레못 유적(1973) 상원 검은모루 유적(1966)
- ② 공주 석장리 유적(1964) 웅기 굴포리 유적(1960)
- ③ 단양 상시리 유적(1974 발견, 1980 발굴) 덕천 승리산 유적(1970)
- ④ 연천 전곡리 유적(1978) 평양 만달리 유적(1979)

7. 통일신라시대 귀족 경제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밑줄 친 ‘이것’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제왕권이 강화되면서 신문왕 9년(689)에 이것을 폐지하였다. 이를 대신하여 조(租)의 수취만을 허락하는 관료전이 주어졌고, 한편 일정한 양의 곡식이 세조(稅租)로서 또한 주어졌다. 그러나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다시 이것이 부활되는 변화과정을 겪었다.

- ① 이것이 폐지되자 전국의 모든 국토는 ‘왕토(王土)’ 라는 사상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다.
- ② 수급자가 토지로부터 조(租)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을 노역(勞役)에 동원할 수 있었다.
- ③ 삼국통일 이후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육두품 신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급하였다.
- ④ 촌락에 거주하는 양인농민인 백정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정답 및 해설 : ②

‘이것’ 은 녹읍이다.

- ① ‘왕토’ 사상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사상으로, 국가의 조세 수취에 대한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 ② 녹읍은 ‘수조권’ 과 ‘노동력 징발권’ 을 모두 인정받았다.
- ③ 녹읍은 삼국시대부터 지급되었으며, 식읍은 공을 세운 진골·(육)두품 등을 가리지 않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되었다.
- ④ ‘백정’ 은 통일신라가 아닌, 고려 시대 농민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8. 다음과 같은 풍속이 행해진 국가의 사회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풍속에 혼인을 할 때 구두로 이미 정해지면 여자의 집에서는 대옥(大屋) 뒤에 소옥(小屋)을 만드는데, 이를 서옥(婿屋)이라고 한다. 저녁에 사위가 여자의 집에 이르러 문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꿇어 앉아 절하면서 여자와 동숙하게 해줄 것을 애걸한다. 이렇게 두세 차례 하면 여자의 부모가 듣고는 소옥에 나아가 자게 한다. 그리고 옆에는 전백(錢帛)을 놓아둔다.
- 『삼국지』, 「동이전」 -

- ① 고국천왕 사후, 왕비인 우씨와 왕의 동생인 산상왕과의 결합은 취수혼의 실례를 보여준다.
- ② 계루부 고씨의 왕위계승권이 확립된 이후 연나부 명림씨 출신의 왕비를 맞이하는 관례가 있었다.
- ③ 관나부인(貫那夫人)이 왕비를 포함하여 죽이려다가 도리어 자가 질투죄로 사형을 받았다.
- ④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는 과정은 국왕이 중국식 혼인제도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정답 및 해설 : ④

‘서옥제’ ⇨ 고구려. 이 문제는 고구려에 대한 보기가 아닌 것만 찾으면 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김씨’ 가 신라계 귀족의 성씨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문제이다.(어렵게 생각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이다)

- ① 고국천왕, 형사취수제 : 고구려
- ② 계루부 고씨, 연나부 명림씨 : 고구려
- ③ (장발미인) 관나부인, 질투죄 : 고구려
- ④ 김흠운 - 통일신라 신문왕의 장인, 김흠들의 동생 : 신라

9. 고려의 형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로 당나라의 것을 끌어다 썼으며, 때에 따라 고려의 실정에 맞는 율문도 만들었다.
- ② 행정과 사법이 명확하게 분리·독립되어 있었다.
- ③ 실형주의(實刑主義)보다는 배상제(賠償制)를 우위에 두고 있었다.
- ④ 기본적으로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의 4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정답 및 해설 : ①

- ① 기본법으로 초기에는 중국의 당률을 참작한 71개 조의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이후, 송률인 절장법도 참작하여 시행하였다.

적중! 대각국사 1권 p. 409 3장 고려 사회편 형법 <학설 따라잡기>
고려시기에는 당률을 준용하는 데 그쳤다는 주장과 고려의 독자적인 법전이 편찬되었다는 학설로 나뉘어 있다. 이는 **율문집을 편찬했다는 분명한 자료는 없으나 율문집을 이용했다는 기사가 있다.**

- ② 행정과 사법 기관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 ③, ④ 구리(銅)를 납부하여 속죄받는 ‘속동제’ 라는 배상제도도 존재는 하였으나, 일시적이거나 매우 제한적이었고 실제로는 태·장·도·유·사형이라는 5형 제도에 입각한 실행제도가 원칙이었다.

10. 고려시대에는 귀족·양반과 일반 양민 사이에 ‘중간계층’ 또는 ‘중류층’ 이라 불리는 신분층이 존재하였다. 이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반은 궁중의 잡일을 맡는 내료직(內僚職)이다.
- ② 하급 장교들도 이 신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 ③ 서리는 중앙의 각 사(司)에서 기록이나 문부(文簿)의 관장 등 실무에 종사하였다.
- ④ 향리에게는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 ④

④ 향리에게는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지 않았다(X). ⇨ ‘향공진사’가 가능하여, 향리들은 과거, 군공 등을 통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하였다.

11. 밑줄 친 ‘국왕’ 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은 행차 때면 길에 나온 백성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었다. 또한 척신 세력을 제거하여 정치의 기강을 바로 잡았고, 당색을 가리지 않고 어진 이들을 모아 학문을 장려 하였다. 침전에는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는 편액을 달았으며, “하나의 달빛이 땅 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달은 태극이며 그 태극은 바로 나다.” 라고 하였다.

- ① 병권 장악을 위해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 ②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을 추진하였다.
- ③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특권을 폐지하였다.
- ④ 백성의 여론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신문고제도를 부활하였다.

정답 및 해설 : ③

‘척신(외척) 세력 제거’, ‘탕탕평평실’, ‘만천명월주인용’ : 정조

- ① 금위영 - 숙종
- ② 북벌론 - 효종 · 숙종
- ③ 신해통공 - 정조
- ④ 신문고 제도 부활 - 영조

1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국왕과 관련되는 내용은?

()이 원나라의 제도를 따라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고 전상(殿上)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왕이 사람을 시켜 물었다. …(중략)… 답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 라고 하니, 왕이 기뻐 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 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 고려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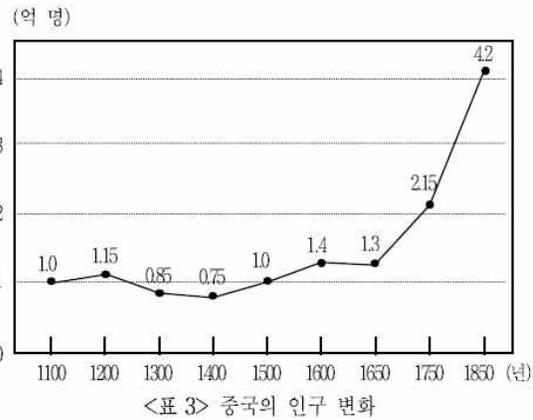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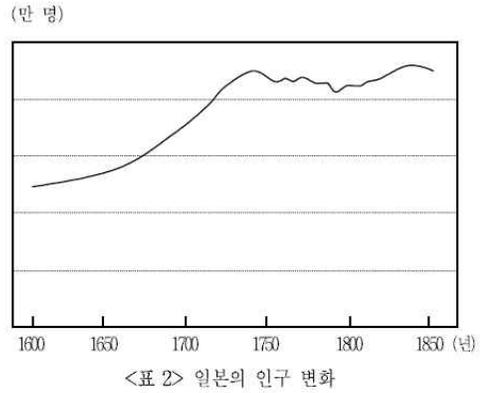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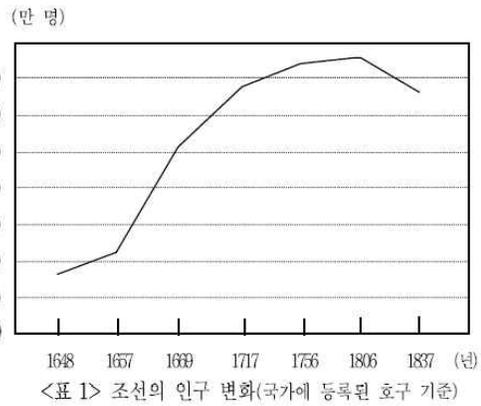
- ① 노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장례원을 설치하였다.
- ②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
- ③ 『동국병감』과 같은 병서를 간행하여 원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④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정답 및 해설 : ②

공민왕. 공민왕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항상 변발과 호복을 풀어달라는 감찰대부 이연종의 간언으로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① 조선 세조13년 변정원을 개칭 한 관청
- ②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 요동 지방 공략(요양 점령) - 공민왕
- ③ 『동국병감』(문종) : 김중서가 편찬.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쟁사 정리
- ⇨ **적중! 대각국사 2권 p. 349 조선 문화사 병서 편찬 참조**
- ④ 과전법 시행 - 공양왕 3년(1391)

13. 다음은 조선과 일본, 중국의 인구 변화 추세를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삼남지방의 개발과 인구 유입 때문이었다.
- ② 명대 초기 1억 4천만 명 정도였던 중국의 인구는 청대 3억 명을 돌파하였고, 19세기 중반에 4억 2천만 명에 이르렀다.
- ③ 17세기 ~ 18세기 초반 조선과 더불어 삼국은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농경지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 ④ 17세기 이후 일본의 인구는 정체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18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정답 및 해설 : ③

공무원 한국사 출제 사상, 최초로 출제된 새로운 형태이다. 언뜻 보면 사회 문제를 본뜬 문제 형태인 듯하여, 당황했을 수험생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수능에서 다져진 ‘그래프 해석 능력’ 과 ‘한국사 기초 개념’ 만 곁들이면 풀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문제이다.

- ①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삼남지방의 개발과 인구 유입 때문(X)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해외 망명 동포들의 귀국으로 인구가 증가
- ② 그래프에서, 중국이 1억 4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보유한 시기는 1600년이다. 즉, 17세기이다. 이는 명대 초기가 아니라, 후금(청)이 건국된 시점이다.
- ③ 조선 효종 때는 농가집성, 숙종 때는 양전 결과 농업 생산력이 세종 대왕 시기와 비슷해졌고, 정조 때의 제언절목이 반포되어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다. 이는 인구 증가의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1600년부터 1700년대 전반까지, 즉 17세기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일본의 인구는 ‘증가’ 하고 있으며 18세기 중반경부터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인다.

14. 밑줄 친 ‘이 농서’가 처음 편찬된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상집요』는 중국 화북 지방의 농사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서 기 후와 토질이 다른 조선에는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농사 경험이 풍부한 각 도의 농민들에게 물어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이 농서가 편찬되었다.

- ①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표현한 몽유도원도가 그려졌다.
- ②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한 조계종이 성립되었다.
- ③ 윤희는 주자의 사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 ④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유행하였다.

정답 및 해설 : ①

‘농사 경험이 풍부한 농민들에게 물어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법’
 ⇨ 직설(直說) : ‘직접 말하다’라는 뜻 ∴ 『농사직설』(세종)

- ① 몽유도원도 : 15세기
- ② 조계종 : 고려 최씨 무신 정권기
- ③ 윤희의 주자성리학 비판으로 인한 처형 사건 : 경신환국(숙종)
- ④ 진경산수화·풍속화 : 18세기

15. 밑줄 친 ‘이번 문서’를 보낸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덕에 귀의하여 군신 관계를 맺었다고 하였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강화로 도움을 옮긴 지 40년에 가깝지만, 오랑캐의 풍습을 미워하여 진도로 도움을 옮겼다고 한다.
 - 고려첩장(高麗牒狀) -

- ① 최우가 도적을 막기 위해 만든 조직에서 비롯되었다.
- ② 최충헌이 신변 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조직하였다.
- ③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 ④ 쌍성총관부 탈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직이었다.

정답 및 해설 : ①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는 고려 정부가 두 개라는 것에 혼란스러워 하는 일본의 반응이다. 결정적 단서는 ‘진도로 도움을 옮겼다’는 것이다. 즉, 삼별초에 대한 설명이다.

- ① 최우는 도적을 잡기 위해 야별초를 조직하였고 이것이 좌우별초로 확대되었으며 몽고에서 탈출한 포로병들을 합쳐 삼별초라 하였다.
- ② 도방 - 최충헌의 신변 보호 기구
- ③ 광군(사) - 거란 침입 대비 군대
- ④ 삼별초와 쌍성총관부 탈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쌍성총관부는 공민왕이 유인우 장군을 보내 탈환하게 하였다.

16. 다음 글을 남긴 국왕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보잘 것 없는 나, 소자가 어린 나이로 어렵고 큰 유업을 계승하여 지금 12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나는 덕이 부족하여 위로는 천명(天命)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민심에 답하지 못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잊지 못하고 근심하며 두렵게 여기면서 혹시라도 선대왕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런데 지난번 가산(嘉山)의 토적(土賊)이 변란을 일으켜 청천강 이북의 수많은 생령이 도탄에 빠지고 어육(魚肉)이 되었으니 나의 죄이다.
 - 비변사등록 -

- ①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하였다.
- ②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양인으로 해방시켰다.
- ③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격침되었다.
- ④ 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정답 및 해설 : ②

‘가산’, ‘청천강 이북’ 등이 핵심 단어이다. 이를 통해 순조 때 발생한 홍경래의 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동학 창도 - 철종
- ② 공노비 해방 - 순조 원년
- ③ 제너럴 셔먼호 사건 - 대원군(고종 집권기)
- ④ 삼정이정청 - 철종

17. 조선 후기 천주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해사옥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 ② 안정복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저술하였다.
- ③ 1791년 윤지충은 어머니 상(喪)에 유교 의식을 거부하여 신주를 없애고 제사를 지내 권상연과 함께 처형을 당하였다.
- ④ 신유사옥 때 황사영은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해달라는 서신을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려다 발각되었다.

정답 및 해설 : ①

- ① 기해사옥(X)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저술 ... 신유박해

18. 조선시대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도전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포용하였으며, 특히 춘추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 ② 이황은 16세기 조선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 등을 주장하였다.
- ③ 18세기에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호론과, 이를 같다고 주장하는 낙론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 ④ 유형원과 이익의 사상을 계승한 김정희는 토지제도 개혁론을 비롯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정답 및 해설 : ③

- ① 정도전은 ... 춘추(X)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주례(O)
- ② 이황(X)은 ...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 등을 주장. 이익(O)
- ③ 18세기 호락논쟁
- ④ 유형원과 이익의 사상을 계승한 김정희(X)는 ... 정약용(O)

19. 다음은 박은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일부분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세시위가 확산되자, 일제는 헌병 경찰은 물론이고 군인까지 긴급 출동시켜 시위군중을 무차별 살상하였다. 정주, 사천, 맹산, 수안, 남원, 합천 등지에서는 일본 군경의 총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화성 제암리에서는 전 주민을 교회에 집합, 감금하고 불을 질러 학살하였다

- ① 일제는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 ② 독립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대규모의 만세운동이었다.
- ③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 ④ 파리강화회의에 신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렸다.

정답 및 해설 : ④

3·1운동.

- ④ 파리강화회의에 신규식(X)을 대표로 파견하여 ...
김규식(O)
-

20. 4·19 혁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다.
- ②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농민들은 자작농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③ 혁명 이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④ 과도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정답 및 해설 : ④

1960년 4·19 혁명

- ① 5·10 총선거 - 1948년
 - ② 농지개혁법 - 1950년
 - ③ 4·19 혁명 이후, 재야 세력과 대학생들은 중립화통일론·남북교류론 등을 주장하며 통일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 ④ 4·19 혁명 이후, 허정과도정부가 출범하고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3차 헌법이 개정되었다.
-

대각국사 오태진의 합격으로 가는 길

<http://cafe.daum.net/officialhistory>